

“공무원 범죄 신고면 환수금액의 10% 줍니다”

여수시 전국 첫 신고포상 조례 제정

도둑 맞은 ‘시민 혈세’ 환수 길 열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범죄 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보상규도를 환수

금액 10% 이내로 수정해 시의회에 다시 제출, 의결됐다. 여수시는 17일 “지난 15일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피해재산 환

수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금 횡령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해 시의 피해재산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환수 금액 10% 이내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과 보상금액 결정 방법 및 피해재산 환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횡령 공무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횡령 공무원에게 채무가 있어 시가 대신해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제3자의 재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는 서식에 의한 직접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금액이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시민들

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전 기능직 8급 직원 김모씨(47·구속)가 횡령한 80여만원의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신고보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김씨의 실제 재산이 거의 없어 형식적인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참전유공자 수당 7만원으로 인상

여수시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는 전남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여수시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해왔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

리고자 여수시의회와 협의하여 수당을 대폭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4500여명의 보존가족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된 국가유공자증과 수당 지급계좌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두 1700여명이 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 인기 17일 오전 신안군 안좌초등학교에서 열린 ‘2013 찾아가는 어린이 연극 빨간모자’ 공연이 끝난 뒤 출연진들이 신안군 안좌초교, 병설유치원 등 어린이,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순천시-여수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협약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등 지원 약속

순천시는 17일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이하 여수산단협의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이순현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창구 운영

과 함께 입장권 구매 지원 등을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날 조충훈 시장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으며, 이순현 협의회장은 전남 동부권이 함께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는 국제행사인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순신대교 과적·과속 차량 ‘철퇴’

도, 안전사고·내구연한 확보... 대형덤프·탱크로리 주 2회 이상 합동단속

전남도가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내구연한(100년) 사수를 위해 과적·과속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7일 전남도는 “지난 2월 개통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에 1일 평균 1만80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함에 따라 이순신대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내구연한 확보를 위해 과적·과속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도로 개통으로 여수와 광양 간 거리가 기존 60km에서 10km로 단축된데다 산단 진입로란 특성상 대형

차량 운행이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형덤프와 탱크로리, 컨테이너 적재차량의 과적 및 과속으로 이순신대교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내구연한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유지관리사무소가 건립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주 2회 이상 합동단속한다. 과적·과속이 심하면 다리의 내구연한이 짧아지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적 의심차량 151대를 검차한 결과 적재 기준(40t)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으나 상당수 차량들이 기준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윤진보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최근 서해대교와 광안대교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순신대교는 주탑 높이 270m, 주탑과 주탑 사이의 경간장은 1545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세계 4번째의 현수교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성찜 대학생 탐방단

‘유-그린 원정대’ 모집

郡, 오는 27일 발대식...역사기행·다례 체험

보성군이 전국 곳곳에 보성 녹차 바람을 일으킬 ‘유-그린(U-Green) 원정대’를 모집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커피 열풍으로 인해 아름다운 차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보성차 대학생 탐방단, ‘유-그린 원정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유-그린 원정대는 오는 27일 한국차소리문화공원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보성의 싱그러움 차밭과 한국차박물관 등을 탐방하고 다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태백산맥박물관, 서해필기념공원 등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명소와 전국 3대 해

변에 선정된 율포솔밭해변 등 보성군은 원정대 참가자들에게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녹차와 보성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탐방 이후에는 보성 녹차 마케팅, 녹차의 일상화, 차밭 주변 안내표지판 등 3가지 주제 중 한 가지에 관한 미션을 수행해 우수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이밖에에도 참가 대학생들은 향후 보성의 각종 축제나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유-그린 원정대 카페(<http://cafe.naver.com/greentonehege>)나 보성군 녹차산업과(061-850-562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해남에 승마장 잇따라 들어선다

울 땅끝승마장 오픈 이어 2곳 추가 개장 준비

해남에 잇따라 승마장이 들어서고 있다. 군은 승마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해남지역 승마인들이 모여 두류동호회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해 옥천면 용심마을에 땅끝승마장이 문을 열었고, 오는 5월 중에는 16만㎡의 황계동관광농원 내 승마장(말 10두), 9월 중 삼산면 평화리 문화마을 한국힐링승마센터(말 20두) 등이 개장 할 예정

이다. 땅끝 승마장은 토요방과 후 수업으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황계동관광농원은 말과 농원, 해남의 문화관광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사단법인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힐링승마센터도 일반인 승마 체험과 함께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참전복 日 첫 수출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참전복이 일본에 첫 수출됐다. 진도군은 17일 “서해와 남해의 거친 물살이 교류하는 청정바다 진도에서 자란 참전복 1t(약 4000만원)이 지난 16일 일본 처너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진도 참전복은 옥주출수산을 통해 매달 1t씩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진도군의 주력 산업인 양식용 치패(어린 전복)도 수출을 추진

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전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 핫포초장과 전복 관련 회사인 시라카미 수산 주식회사 등을 방문해 진도 전복의 우수성 홍보와 지자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5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에 일본 해당 지자체인 핫포초장 관계자와 의장, 부의장 등 일행 10명이 축하 사절단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ark@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DRAGON LAKE COUNTRY CLUB

아름다운 자연에 품격만 더했습니다.

교통상 정기를 받아 풍악산 전경을 바라보며 탁트인 푸른 호수에서 느껴지는 자연 친화적인 여유로운 코스.

국내 최고 필드컨설턴트 김명길 회장의 섬세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18개의 아름다운 홀.

귀하의 고품격 골프 라이프를 위한 제안- **드라곤레이크 컨트리클럽.**

남원에 위치한 퍼블릭 18홀 전장 6,531m로 파72 정규홀 - 드라곤 레이크 컨트리클럽

전라권 최고의 퍼블릭으로 자리매김할 드라곤 레이크 컨트리클럽을 만나보세요

Club House 신한종합건설그룹의 노하우로 설계한 클럽하우스

GLOBAL INNOVATION
신뢰와 성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 30년간 경험 건설을 지향해온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신한종합건설그룹이 새롭게 명을 필드프로로 보강하겠습니다.

Country Club
DRAGON LAKE COUNTRY CLUB

Constructor
신한레저(주)

드라곤레이크 컨트리클럽 | 회장 : 박남식 / 사장 : 이승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신면 옥우리 산 142-1번지 | 대표번호 : 063-630-3000-3 / 예약실 : 063-630-3004-5 | <http://www.dragonlake.co.kr>